

교육의 선발 및 교육이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딴 지역의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이나 주말에 영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방학 중 영재교육 캠프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재교육의 영역을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언어, 창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또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배출된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은 곧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2002년에 마련된 “영재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창의력 교육이 영재교육의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남의 영재교육은 창의력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만 치중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이나 지식 영역의 틈새에서 생기거나 어떤 것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생긴다.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미래의 인재들에게 무엇보다도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계발케 하는 창의력 교육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풍토가 마

련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수행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교사는 성공적으로 영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테크닉, 그리고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김홍원, 2002).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국내연수의 경우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2005년도에는 계획에 있지 않다. 선진의 국외 우수한 영재교육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이 분명한 데, 오히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지원 풍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행·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토론자에게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 언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도시 4_ 청양군

Cheongyang-Gun



요즘 청양에 가면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청양으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청양은 과거 한때 구봉광산, 삼광광산 등 광산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십만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였지만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개발정책으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오늘날 충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낙후된 지역의 현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주민이 인근 대도시로 떠나게 됨에 따라 지역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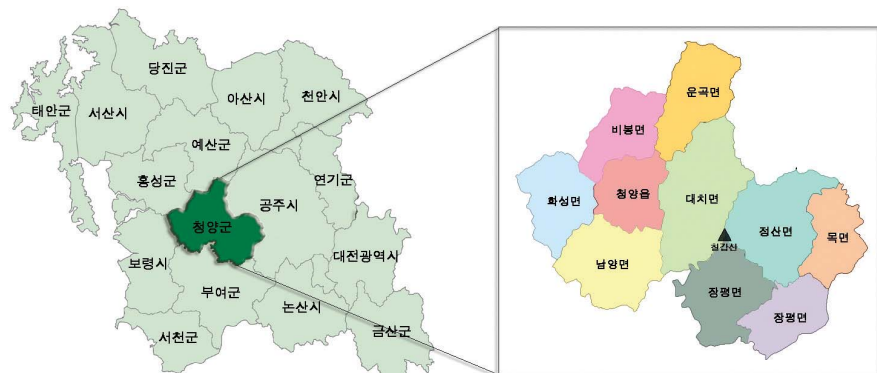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인식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문구로 대표되는 그린-컴(Green Come)운동이다. 그린-컴 운동과 더불어 최근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신활력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수혜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청양군은 더 이상 낙후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찾고 싶은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충남의 도시4_ 청양군

Cheongyang-Gun

청양의 일반현황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쪽은 공주시, 서쪽은 보령시, 남쪽은 부여군, 북쪽은 예산군과 인접해 있으며 광역적으로 대전시의 사회 경제적 영향권에 포함된다. 동서길이가 약 32km, 남북길이가 28.5km로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山' 자 형태를 가진 청양군의 면적은 479.57km²로서 충청남도에서 5번째로 작다. 행정구역은 1읍(청양읍) 9개면(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권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남동부의 정산지역과 북서부의 청양지역으로 나뉘어 진다.



청양군 위치도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64.8%가 임야지역 일뿐만 아니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충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충남의 지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양군은 충남의 알프스로 불려진다. 또한 청양은 내륙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고 같은 위도상의 해안지역에 비해 겨울기온이 낮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추, 구기자, 메론 등 특산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청양군의 하천은 주로 칠갑산, 오서산 등 차령산맥의 지맥에서 발원하여 금강본류나 지류, 무한

천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 즉, 청양군내 모든 수계는 지역내 산지에서 발원하여 타 시군으로 흘러가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은 전혀 없다. 이러한 수계적 특성과 함께 지역내 대규모 오염원이 없어 청양군의 하천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청양군의 인구는 37,194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규모의 약 2%를 차지하며 1990년 이후 연평균 2.68%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구성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구성비가 23.2%로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더구나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본 청양군의 경제규모는, 지난 7년간 연평균 0.1% 감소하였고 고용자수는 1.2%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청양군의 산업구조는 농가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55%로서 전국 평균의 5배를 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양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로는 고추와 구기자, 메론 등을 들 수 있다. 고추의 경우 생산량이 연간 2,210톤으로 충남 지역 생산량의 12.9%를 차지하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지역의 기후특성으로 인해 매운 성분 함량이 높고 감칠맛이 나는 등 상품성이 높아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 청양에서 생산되어 지역내 고추 구기자 특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양은 구기자 생산 유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양메론은 당도가 높고 맛과 향기가 좋을 뿐 아니라 과육이 많고 부드러운 일본으로 수출될 정도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양 고추



청양 구기자



청양 메론



청양군 문화·관광자원

청양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국보 2개, 보물 7개, 중요민속자료 1개), 지방지정문화재 13개 등 총 38개 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은 차령산맥의 잔구(殘丘)로서 주변지역에는 명승과 명찰이 많으며 충청남도의 알프스로 불린다. 칠갑산은 높지 않고 면적도 넓지 않은 편이나 골이 깊고 숲이 우거져 지역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칠갑산 주변에는 장곡사, 지천구곡(之川九曲) 삼형제봉(三兄弟峰) 장곡사(長谷寺) 정혜사(定慧寺) 두륜운성, 1979년에 만든 인공 저수지인 천장호(天庄湖), 칠갑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명소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청양군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의 대외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와 칠갑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청양군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첫째, 농촌지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또는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의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즉, 기존에는 낙후된 공간, 식량공급처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휴양공간, 생산공간, 생활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농촌어메니티(amenity) 자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청정한 자연환경,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 풍경으로서 농촌경관, 특산물,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최근 여가관광시장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이는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셋째,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고속교통망의 확충, 노동중심의 가치관에서 여가중심의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국내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 중시 추세로 전원생활 선호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와 연계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청양군은 농촌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도가 증진되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주-서천 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주-보령 고속도로 등이 개통될 경우 청양군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첨단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입지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이다. 청양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인접 배후지역으로서 도시개발의 파급효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지역의 세력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흡입되어 오히려 지역이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양군은 충남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미지를 활용하여 5도2촌의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충남의 도시4_ 청양군

Cheongyang-Gun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최근 청양군은 낙후지역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부시책의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최근의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전략,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 수립, 혁신주도형 계획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사업들이 고추 구기자로 대표되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계획의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있어 내생적 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청양군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그린-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청양군 신활력사업

청양군은 낙후지역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활력지역을 만들어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된 신활력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의 낙후지역)으로 2004년에 지정되었다. 청양군 신활력사업은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여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거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청양군 신활력사업에서는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산 학 연 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혁신체계(RIS) 확립과 청양을 대표하는 7가지 농산물(청양고추, 구기자, 메론, 토마토, 밤, 표고버섯) 중에서 청양고추를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정농산업과 그린투어리즘의 메카 청양』실현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청양읍은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5년에 선정되었다. 청양읍 종합육성계획은 선택

과 집중 전략에 의해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청양의 전략산업인 고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둘째 고추 구기자의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고추 구기자 특화시장 기능 강화사업, 셋째, 충남 최고의 산림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이다.



고추문화마을 전경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청양군 정산면 서정권역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한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 2004년에 지정되었다. 서정권역은 하늘아래 최고의 청정성을 지닌 마을로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빛 땅빛 물빛 마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낙후한 지역여건을 재해석하여 ‘4개의 최고와 2개의 최저가 함께 있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4개의 최고란 ‘가장 높은(最高) 하늘’, ‘가장 오래 동안(最古) 농촌성을 간직한 마을’, ‘최고(最高)의 건강식 콩이 그득한 마을’, ‘가장 매운(最高辛) 고추’를 의미하고 2개의 최저는 ‘가장 오염이 적은(最低) 농촌마을’, ‘가장 도시성이 적은(最少) 농촌마을’을 가리킨다.

청양군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소도읍 육성 사업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 •전시·홍보관 조성 •고추테마공원 조성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허브 구축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	•웰빙먹거리 장터 조성 •고추·구기자 기능 강화 •상인 역량 강화 및 세계 매운 맛 먹거리 축제 개최
	푸른 청양 가꾸기 사업	•우산 생태숲 조성 •지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경관가로 조성 •아름다운 지붕경관 가꾸기 및 벽면·옥상 녹화
신활력 사업	RIS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청양고추연구센터, 청양고추 포럼 등 지역혁신조직 운영 •지역혁신위크샵, 벤처농업인 육성, 농촌관광경영인 양성, 청양아카데미 운영
	파워 7갑 청양고추 명품화	•친환경 재배 시스템 구축, 청양고추 품질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고춧가루 생산 현대화, 매운맛 등급별 고추장 개발, 청양 특산물 함유 고추장 개발 •파워7갑 공동 BI 개발, 포장재 디자인 및 홍보판촉물 제작, 청양고추 홍보·마케팅 •Green-Come 운동전개, 도농교류 확대, 농촌관광상품 개발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자연환경 보전계획	•하천재해방지시설 조성 •수변공원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청소년 체육시설, 장승공원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쉼터 조성 •산책로, 꽃길, 주차장, 마을연결도로 보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문자 센터 조성 및 전통문화체험관 리모델링 •가재체험장, 웰빙체험농장, 장류가공시설, 구기자 체험관 등 체험시설 조성 •표고톱밥배지재배사 조성 •대나무 낚시터, 어린이 동물체험장 조성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친환경재배기술 교육 •권역내 정보화 및 권역종합안내시스템 구축
	기 타	•세부설계비 및 사업관리비 등

그린-컴 운동

그린-컴이란 포근한 시골 정취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청양으로 오세요’라는 뜻이다. 청양군에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되찾게 하고 동시에 『그린-컴 청양』이란 지역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운동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청양군에서는 그린-컴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APT단지, 부녀회,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과 청양군 마을)이 짝을 짓는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포함해서 ‘청양그린투어의 날’ 운영, ‘학생 그린투어체험’ 참여, ‘출향인 가족 고향찾아보기 운동’ 전개, ‘내고장 친환경 농축산물 가꾸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컴 로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농촌성과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장 농촌다운 농촌의 특성을 보유한 청양군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광역적 접근성 개선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청양군이 이러한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진행중인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말 그대로 ‘하늘 빛, 땅 빛, 물 빛 모두 아름다운 청양’으로 거듭나 낙후지역 활성화의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